

# 感傷紀行 4

金錫澈

종합건축사사무소 아키반

## 프랑크푸르트에서 85. 11. 2

어제밤에 마신 술이 아직 깨지 않는다. 프랑크푸르트 시내 주택가에서 비스바덴으로 다시 간다. 별판속에 곳곳의 수목들과 집들이 자연스럽게 이어간다.

비스바덴 중심가의 길한측을 온통 차지하고 있는 공원이 아름답다. 백년 가까이 되었다는 어제 짐을 풀었던 호텔로 와서 체크아웃을 한다. 잠은 엉뚱한데서 자고 돈은 여기서 낸다. 390마르크면 비싼 호텔이다. 다시 되돌아서 프랑크푸르트 공항으로 간다. 뮌헨국립극장과 심포닉홀을 보고 하루 거기서 자고 다음날 휴리히 오페라하우스를 보고 하루자고 돌아올 예정이다.

그리고 보니 어제는 열여섯시간 비행기를 타고 와서 곧바로 일곱시간 일을 하고 다섯시간 술을 마시고 좀 자다가 지금 여기로 오는 셈이다. 맥없는 천하장사들이다. 어제는 도착하자마자 슈나이더씨 방으로 가서 도면과 시방서를 펴놓고 일곱시간 일했다. 별 수정할 것은 없다. 타자 틀린것과 디멘션의 통일, 기준점의 조정 등 만이다.

처음엔 그렇게 멀고 난감해 보이던 곳에 결국 도달한 셈이다. 도면에서도 사소한 몇가지 이외는 지적이 없다. 프로세니움 좌우측 세 갤러리와 사이드라잇 그리고 스테이

지와의 연결은 잘 정리된 것으로 보인다. 우리 나름대로 건축적 성과에 있어서는 괄목할 부분도 더러 있다. 오케스트라핏과 무대 그리고 백스테이지와의 연결도 잘되어 있다. 기술적인 몇가지 디테일만 보완되면 세계적인 수준의 것이 될 수 있어 보인다. 결국 해낸 셈이다. 일을 끝낸후 밤에 프랑크푸르트 누나집에 가서 대여섯시간 술을 마시고 대여섯시간 자고 이렇게 또 멀리 떠나고 있다.

뮌헨은 전혜린씨의 수필에서 보이던 것과는 다른 느낌의 도시다. 잘 늙은 초로의 신사 같다. 역시 공원과 도시의 만남이 부럽다. 오페라하우스 바로 옆 호텔에 짐을 풀고 바로 뮌헨국립극장으로 갔다. 세계 극장인협회 회장이기도 한 기술감독 그로써씨의 안내로 정식으로 무대구경을 한다. 마침 스테이지 웨곤이 움직이고 있었다. 스테이지 레벨에 네 무대가 연결되었다. 주무대와 옆무대 및 뒷무대 그리고 장치무대라고 부르는 옆과 뒤사이의 네 무대로 이루어져 있다.

주무대와 옆 뒤 무대는 사운드샷타로 구분되게 되어있고 옆뒤 무대와 장치무대사이에는 네 부분으로 겹쳐지는 슬라이딩 도어로 구분된다. 주무대만 오르내리게 되어 있어 6m×20m인 스테이지 웨곤은 삼사십센치 높이로 그냥 놓인다.

주무대는 세 리프트로 되어 있는데 프로세니움의 최대폭이 16m여서 양측으로 2m씩 여유를 두었다. 세 리프트는 싱글데크며

무대밑은 두 갤러리를 가진 그냥 넓은 공간인데 수납장소로 쓰이기는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각 리프트는 두 단위로 다시 상부가 움직이게 되며 리프트들 사이에는 수직수평으로 움직이는 엘리베이터가 장치되어 있다. 하이드롤릭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 밑무대 옆 장소에 모터룸과 컨트롤룸이 있다. 리프트마다 별도의 컨트롤과 모터가 분리되어 있다.

네 무대는 모두 가이드 레일홈으로 연결되어 웨곤이 좌우 전후로 다 움직일 수 있다. 자유로 움직이는 보조웨곤을 많이 쓰고 있다. 일곱개의 웨곤이 사용되고 있고 모두 리프트와 크기가 같다. 백년 공연에 두번정도 쓰이는 턴테이블은 그래서 세 웨곤에 부분들이 장치되는 방식을 쓰고 있다. 장치무대는 길로 부터 리프트가 연결되는 긴 창고와 바로 이어진다. 이 부분이 훌륭해 보인다. 본 무대의 높이가 도로보다 한층 위므로 도로로부터 3m 폭에 20m 길이인 리프트가 트레일러체 올리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출입이 완벽해 보이고 커보이는 창고 스페이스가 좁아 먼곳에 따로 창고를 짓고 있다 한다.

년간 새로이 시작되는 레퍼토리가 여섯정도 되고 그러기를 20여년 해와서 자기들이 현재 가진 레퍼토리가 백가지가 넘는다 한다. 토스카 같이 두 컨테이너인 적은 장치도 있지만 마농이나 마스터 싱거, 칼멘 같이

뮌헨에만도 여섯의 오페라하우스가 있다. 로비의 화려함은 그러나 정작 자세히 보면 결정적인 부분들에만 대리석을 사용하고 대부분 플라스틱마감인데 마루와 돌과 카페트가 적절히 구사된 바닥과 맑게 처리된 단순한 천정이 화려한 의상과 어울려 축제스러운 분위기를 이루고 있다.

열 컨테이너가 넘는 것도 많아 거의 오륙백 컨테이너를 보관해야 한다는 것이다. 꿈같은 얘기지만 우리도 이십년 뒤를 생각해야 할 것이다. 서울에만도 비록 가수만 이지만 다섯 가까운 오페라 극단이 있으므로 장치를 통합 관리하려면 장치의 필요를 미리 대비하는 지혜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로썬씨의 방에 가서 우리 도면을 보이고 촌평을 들었다. 장치반입 장소를 확대하는 것이 좋을 듯하고 장치의 필요에 대비한 창고공간을 주위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와 자기 극장의 기술자료를 받았다. 스테이지 웨곤을 한 방향으로만 움직이지 말고 전후 좌우로 움직이는 것이 바람직하며 턴테이블은 용도가 적으므로 주장치 지역이 되는 뒷무대에 보다 반입지역과 떨어진 좌측 무대에 두는 것이 좋겠고 턴테이블을 셋으로 분리해 평소에는 세 웨곤으로 쓸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나은 선택이 되리라고 말한다.

낮인데 본무대에는 연습할 무대를 꾸미고 옆 뒤 무대에는 저녁공연을 위한 장치를 만들고 있다. 저녁공연 시작 한 시간전부터 공연 직전까지를 지켜 보기로 한다. 공연 한 시간전은 꾸미진 장치에 조명을 기억시키는 작업을 한다. 발레인 마늘을 상영한다. 거의 한 시간전의 빈 무대에는 완벽히 장치된 무대가 서고 사람들이 로비로 들어오기 시작한다. 한 시간여 무대에서는 최종 점검이 시작되고 사람들은 로비 여기저기를 다니며 담소한다. 공연만을 보러 오분전에 와서 후다닥 보고가는 것이 아니라 이 축제의 한 중요한 손님으로 여기에 온다. 모두 파티에 온 차림들과 표정들이다. 공연들은 그들의 잔치인 것이다.

뮌헨에만도 여섯의 오페라하우스가 있다. 로비의 화려함은 그러나 정작 자세히 보면 결정적인 부분들에만 대리석을 사용하고 대부분 플라스틱마감인데 마루와 돌과 카페트가 적절히 구사된 바닥과 맑게 처리된 단순한 천정이 화려한 의상과 어울려 축제스러운 분위기를 이루고 있다. 복원된 로비의 옛 부분보다 새로된 로비의 분위기가 훨씬 세련되고 우아하다. 잘사는 나라 건축의 한 특징이 적절하게 돈을 쓰는데 있는것 같다.

말하자면 주제파악을 하고 투자한다. 오페라하우스가 도시에서 무엇인지 그 입구홀은 어떤 곳이며 로비에서는 무슨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알고 있는 것이다. 객석이 가져야 할 전경은 어떠한가 가장 중요한 사건들은 무엇이며 앞서 해야할 일과 디테일에서 해결해야 될일이 어떤 것인지를 잘 알고 만든 건물답다. 이러니 잘사는 사람은 더 잘 살게 되고 못사는 사람은 유치하게 살게까지 되는 것이 아닌지. 무대장치에의 투자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당장의 필요는 어떻게 장치에의 준비는 어떠한가 하는지를 알고 시작된 것이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지금 우리는 어디쯤 가고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다.

서울에서 예술의 전당이 가지는 뜻은 어떠한가, 그런 시사적인 질문에서부터 공연 예술이 가지는 일상에서의 조우는 무엇인가, 문화예술에의 공간적 참여가 주는 도시공동체적 자기확인의 실상은 무엇인지 하는 근본적인 질문에까지, 혹은 공공장소-객석-무대-뒷무대의 모든 장소들에 대한 의미규정과 장치요소에 이르기까지 무엇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지를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뮌헨극장극장의 완벽함은 우리가 빠뜨린 많은 일들을 다시 생각해 한다.

## 취리히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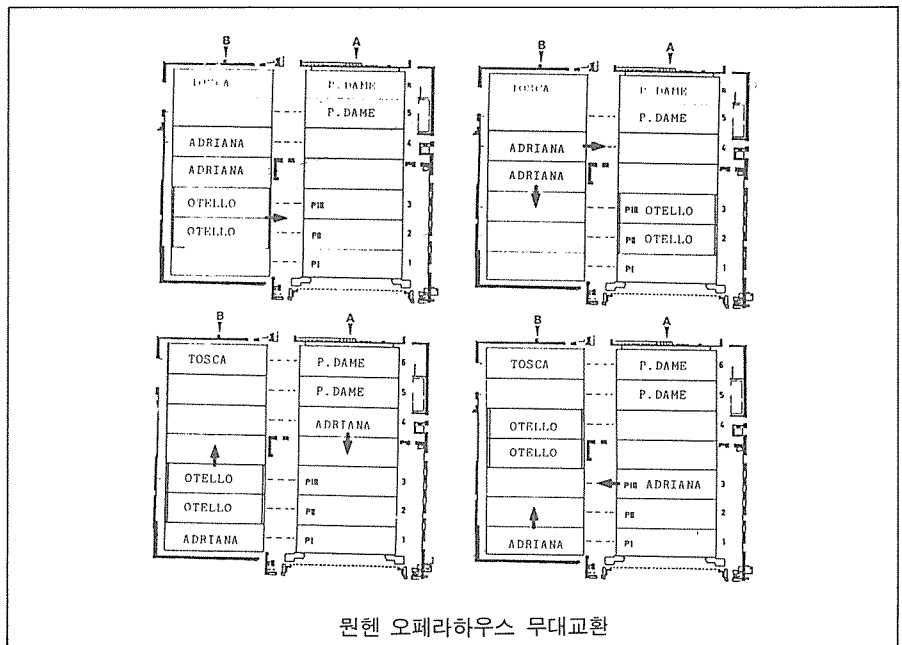
85. 11. 3

부러진 발로는 처음 많이 걸어서 발이 통통 부었다. 체중에 비해서 하체가 약한 설움은 여자한테만 받는게 아닌 모양이다.

뮌헨에서 취리히까지 비행시간은 삼십분도 채 되지 않는다. 통과여객으로만 지났던 취리히 공항에서 처음 짐찾는 구역으로 간다. 늦가를 날씨가 청명하다.

하늘에서 내려다 보는 스위스는 마치 지리부도에 나오는 취락 구조를 연상케 한다. 20km에 달하는 알프스의 눈이 녹아내린 취리히 호반가에 맑고 청명한 도시가 자리하고 있다. 한시간에 오페라 기술감독인 슐테스씨를 만나기로해 다리는 많이 아프지만 한시간 반가량 호반을 산책한다.

호반의 물이 산기슭의 흐르는 물처럼 맑다. 낙엽이 날려 가라앉은 위로 바람이 잔파문을 일으킨다. 오리들이 한가히 떠 있고 맑은 바람을 맞으며 사람들이 호반을 따라 걷고 있다. 그림같이 살고 있다. 초겨울 바람이 상쾌히 차다. 산책 도중에 르·꼬르뷔제의 기념관이 된 하이데·베버 하우스를 보았다.



뮌헨 오페라하우스 무대교환

아름다운 호수와 그 가를 이어가는 공원 사이의 빛나는 원색의 건물을 본다. 천재스러운 치기와 야욕이 밝고 환한 형상을 하고서 있다. 양식의 시대에 던져진 그의 투기는 서양건축사의 한 빛이다. 인간과 자연에 대한 그의 확신이 느껴지는 건물이다. 그의 건물은 뜨거운 정열과 강한 인류역사애의 긍정이 기반이 되어 있어 보인다.

아름다운 호수와 그 가를 이어가는 공원 사이의 빛나는 원색의 건물을 본다. 천재스러운 치기와 야욕이 밝고 환한 형상을 하고서 있다. 양식의 시대에 던져진 그의 투기는 서양건축사의 한 빛이다. 인간과 자연에 대한 그의 확신이 느껴지는 건물이다. 그의 건물은 뜨거운 정열과 강한 인류역사애의 긍정이 기반이 되어 있어 보인다.

일년전에 완전히 무대 부분이 새로 만들어진 휴틱오페라 하우스를 기술감독인 슐테스와 제작 총책임이었던 슈나이더의 안내로 한시반부터 밤 여덟시까지 일곱시간서서 다니면서 구석구석을 보고 마침 공연중인 바그너의 음악극을 열두시 까지 보았다. 보아야 할 것들이었지만 너무 많이 보아서 취하였다. 공연중인 뉘른베르크의 대가수는 무대 기술의 장관을 보여준다. 하나 하나의 무대가 또다른 한 예술의 장르인 것은 바그너 다우나 전환들이 이렇게 잠시 쉽게 이루어지는 것은 또하나의 경이다. 바그너가 말하던 소위 총체극에는 이런 기계장치가 새경지를 이룬다. 4막에서 합창단이 풀웨곤으로 뒷무대로부터 밀려오는 장면은 장관이다. 2막에서 리프트들이 단을 지면서 한마음을 구성하는 것도 이런 류의 무대로 조정되고 스테이지 시스템 역시 마찬가지로 여섯이십명이 할 일을 단 두 사람이 훌륭하게 해내고 있다.

고용의 문제를 생각해서는 우습다. 우리가 무엇을 하고자 할때는 바로 그것을 하면 되는 것이다. 더큰 범위의 문제를 아는듯한 태도는 오히려 비 전문적인 생각이다. 무대는 경제원리스럽게 합리적이여야 한다. 무대 자체는 주무대와 뒷무대만이므로 전환에 어려움이 있으나 리프트 스테이지와 뒷무대의 웨곤을 적절히 사용해서 무리가 없다. 양측 갤러리는 역시 조명 스테이션으로 유용하고 측면리깅의 사이드라잇은 용도가 다양하다. 포탈타워와 브릿지의 사용은 필수적이며 고정장소의 라잇브릿지 역시 와이어링 커넥션 때문에 리깅의 가능성을 일부 포기하더라도 필요해 보인다. 용도에 따라 분류 사용되는 계단실도 당연히 보이고 방화구획되지 않은 계단들의 사용이 꼭 있어야 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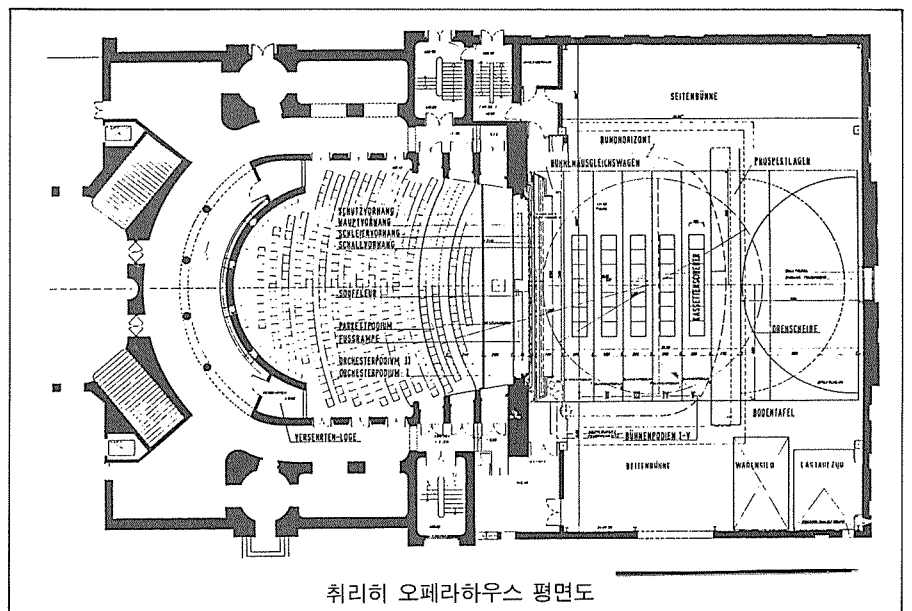
이다. 출연자와 기술진들의 영킴은 좋은 것이 아니며 백스테이지와 스테이지간의 연계장치는 단순할수록 좋으나 곳곳의 알코브는 생각보다 유용할 것이다.

새로 지어진 연결동에는 소극장, 분장실, 의상실, 연습실들이 있다. 엑스페리멘탈 시어터라고 불리우는 가족극장은 라스베가스식의 시어터 레스토랑 형식이기는 하나 극장이 본래 갖는 공간적 참여의 센스가 있다. 어른의 아버지인 어린이들을 위한 이 유쾌한 극장은 무대 역시 작지만 재미스럽다. 무엇을 할지를 아는 사람들이 만든 극장이다.

무대 뒷부분인 분장실, 의상실, 갱의실들의 절제된 디자인은 숙연한 느낌까지 있다. 오케스트라 리허설, 발레 리허설, 코러스 리허설들도 감탄스럽다. 작은 예산으로 최대의 것을 성취하고 있다. 간결하면서 필요한 것은 다 갖추고 있다. 오케스트라 리허설은 두 방향에 갤러리를 두어 음향 효과는 물론 관극도 가능케 하고 있다. 발레 리허설은 큰것, 작은것 두가지가 있다. 일주일 내내 사용된다. 모든 닥트는 노출되어 있다. 서플라이와 리턴이 분명하고 모든 천정고는 2m 500이다. 복도나 계단실 등 사람이 상주하지 않는 곳은 벽부형 파이프조합 라디에타로 난방만 한다. 분장실도 깨끗이 처리된 분장대와 세면기 그리고 간간히 샤워가 있다.

지휘자는 물론 주연급 분장실에도 화장실은 두지 않았다. 모든 방에는 커뮤니케이션 스테이션이 있으나 각방에 별도의 전화는 없다. 전화는 복도에 있다. 오케스트라 분장실은 50명 정도의 록커가 있으나 80-90명은 수용한다. 합창단 분장실에는 샤워가 없고 솔리스트 분장실은 세명씩 쓰도록 하면서 두방에 한 샤워실이 있도록 했다. 지휘자나 주연급은 독실을 쓰나 역시 샤워만 있다. 스테이지 도아측으로 모든 출연자는 물론 기술진, 방문객 등이 드나드는데 바로 전면의 식당과 중정이 잘된 평면구성이 예를 보여주는 듯하다. 커피도 마시고 식사를 하는 두 식당이 있는데 하나는 밖에서도 들어오게 되어 있다. 백년전에 지어진 옛 본건물에 뒷무대 부분을 완벽히 정리하여 새로운 전체를 만들어 내고 있다.

옛 건물도 플라이트워의 미소로운 형상을 중심으로 가라앉은 아름다움이 있다. 로비에서 각층으로 연결되는 복도의 연결도 자연스럽게 구획되어 있고 작으나 앞공원으로 트여 연결되는 로비가 맑끔하다. 로비 부분은 콩자갈 마감이며 객석과 연결된 통로들은 카펫으로 마감되었다. 연결 통로와 객석간은 문 하나로 이어진다. 객석은 1,200여석인데 무대를 향한 현장감이 훌륭하다. 사람들이 가득찬 객석을 밤에 보면서 객석의



취리히 오페라하우스 평면도

아무장치도 없이 반짝이는 머리들만으로 이 활기차고 신난 무대를 이루었다. 간단한 이동장치와 배튼만 가지고 이런 환타지를 만든다. 비었을때 본 런던 클리세움과 오늘밤은 그렇게 다르다. 공연장은 사람이 가득차고 무대가 열릴때 자기의 말을 한다. 빈무대 빈객석의 건축적 성과를 말하는 사람을 웃는다.

가장 큰 장식요소는 역시 사람인 것을 실감한다. 1,200석 정도여서 스톨에서 오케스트라석이 차지한 면적이 1/3가까이 되 보인다. 네개의 서클이 있는데 상층부의 뒤 객석은 역시 멀어 보인다. 프로세니움 좌우의 세 박스는 생각보다 느낌이 좋다. 관객들이 서로 바라보이는 것은 어떤 극적인 감이 있다. 의자들은 F.R.P.로 만들어서 마루바닥과 약간 어긋난 느낌이 있으나 착석감은 좋다. 컨티넨탈시팅인데 전후거리는 90cm이고 좌우거리가 55cm다. 박스에는 작은 의자가 셋은 낮고 셋은 높다. 앞 셋 좌석이 뒷좌석보다 네배 비싸다. 이렇게 한 박스에 가족이 앉으면 좋을 것이다.

바로 이 프로세니움에서 두번째인 여섯이 들어가는 박스에서 장장 여섯시간에 걸친 11 컨테이너의 장치로 구성된 바그너의 뉘른베르크의 대가수를 보았다. 두 막은 객석에서 두막은 무대에서 보았다. 매번 장면 전환이 될때 마다의 무대의 움직임과 리징시스템의 작동을 지켜보고 조명조정 방식을 보았다. 다섯 리프트 스테이지가 승강하고 뒷무대의 장치들이 웨곤을 타고 앞으로 밀려오며 한 신호에 따라 배턴들이 지정된 장소에 도달한다. 신리프트의 용도는 생각했던 것보다 커 보인다. 막은 그때 그때 끄집어 내고 넣어둔다.

## 클리세움에서

85. 11.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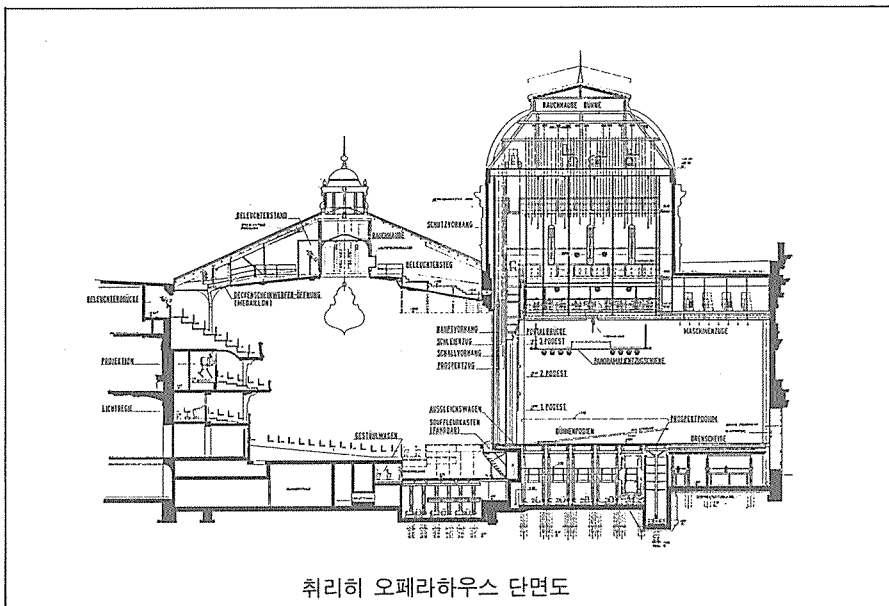
이렇게 별것 더 가지지 않고 그 큰것들을 말하고 표현한다. 런던 클리세움에서의 밤은 사는 일의 한 꽃같은 날이다. 벌써 일주일째 매일 일하고 마시고 다니고 만나서 엉망이된 몸이 갑자기 갱생하는 듯하다. 손을 잡고 본 사람중에는 가장 아름다운 여자의 자태는 흥분스럽다.

아무장치도 없이 반짝이는 머리들만으로 이 활기차고 신난 무대를 이루었다. 간단한 이동장치와 배튼만 가지고 이런 환타지를 만든다. 비었을때 본 런던 클리세움과 오늘 밤은 그렇게 다르다. 공연장은 사람이 가득차고 무대가 열릴때 자기의 말을 한다. 빈무대 빈객석의 건축적 성과를 말하는 사람을 웃는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쉬운 일들을 모르고 무슨 자의식의 늪에서 살아온 것 같다. 스테이지 컴플렉스는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 말하자면 본능 같은 것이다. 예술의 본질적 국면이 스테이지 컴플렉스인 것은 다 알수 있는 일인데 정작 무대와 객석에 대해 생각할 때 어쭙잖은 학자식 논리에 급급해 온 것이 오늘 우리의 초라한 무대와 객석이 있게한 것일 것이다.

우리는 모두 무대에서 있다. 그 우리의 무대는 사실 우리가 앉은 객석 그 자체이기도 한 것이다. 지하의 오르페우스는 도처의 우리가 아닌가. 오르페우스 각시의 갈등은 사실적이나 정작 사실인 것은 오르페우스 같다. 좋은 극장, 좋은 무대는 사는일의 참다운 한 객석을 마련한다. 우리가 만드는 무대들이 그러한 객석의 장소가 되기를 기대한다.

표가 매진된 것을 극장측에서 예매권을 구해왔다. 존과 이스트부룩이 국립극장과 바로 이 극장의 기술감독을 했던 덕을 보았다. 드롤리 레인보다 큰 극장을 짓고져 해서 당시 근 백개에 가까운 극장설계를 도맡았던 건축가의 야심작이다. 밀집한 도시에서의 오리엔테이션을 위해 탑을 크게 올리고 불규칙한 대지형상에 미끌어지듯 큰홀을 잘 조화시켰다. 지층 뒷좌석의 다섯박스와 2층 3층의 좌우 넷씩만 박스로 되어있어 전형적인 오페라 객석형식 보다는 더 많은 객석을 얻기 위한 오페라식 객석과 음악당식 객석을 조합한 형상인데 두 장점이 잘 취사된 것 같다. 프로세니움과 붙은 네명씩의 한 형상인 두 박스는 퀸즈 시트로 되어 있으나 시각이 좋지않아 스톨 전면이나 드레스서클 전면보다 값이 싸다. 퀸즈박스 뒤의 두 반원 박스는 셋내지 다섯이 쓸 수 있게 되어 있다. 1층 객석 뒤의 중앙조명, 음향실 좌우는 모두 박스로 되어 있다. 전 객석이천삼백에 정작 박스의 객석은 오륙십석에 불과하지만 전체의 분위기를 오페라하우스 같이 하는 큰 역할을 한다. 가족들이 한 박스를 차지하고 온 것은 보기에다 좋다. 결국 3% 미만으로 전부를 이렇게 화려하게 한다. 조직원리가 전형적으로 잘된 비레이다.

무대는 불규칙한 대지로 해서 찌그러져 있으나 옆 뒷측과 플라이 타워를 적절히 연결시켜 하루에 두 다른 공연을 훌륭히 해내고 있다. 옛날에는 인터미션시간에 먹고 마시는 일이 없어 로비공간이 협소하여 20분씩 되는 두번의 막간은 마치 기차역 같다. 아마 모두가 다 마시고 먹는다. 주로 담배는 여자가 많이 피우는 것이 또 불만하였다.



취리히 오페라하우스 단면도

저녁에 가서 본 새들러즈의 프로세니움 근처는 톰의 수사인 “빈벽”이 일종의 장벽인 것을 잘 보여 주었다. 새들러즈에서 라트라비아타를 보면서 극장형식의 결정적 중요성 하나가 객석 구성인 것을 실감하기도 하였으나 우리와 같은 하드웨어를 만드는 사람보다 실은 더 극장을 한 실상의 사건으로 만드는 것은 무대위의 사람들인 것을 절감한다.

## 프로세니움에서

85. 11. 8

반년만에 톰. 맥카서를 다시 만난다. 그때만해도 자신만만 하였는데 지금은 모르겠는 것이 이렇게 많다. T형 무대 보다는 뮤닉 오페라의 경우와 같은 발전자 무대가 실지에 있어서 많이 유용하다는 것도 이번 여행에서 처음 실감한다.

뮤닉 오페라하우스에서 그로씨에게 배운 것이기도 하지만 톰 역시 같은 의견이었다. 리허설물이 무대와 왜곤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 객석에서 시각도 중요하지만 오케스트라피트를 분계로한 대응적 구성보다 오케스트라피트 무대이기도 하고 객석이기도 한 두 대위적 입상의 일체화를 시도하는 것이 오페라하우스에서는 필수적이라는 톰의 지적은 몰랐던 중요한 한 국면을 일깨워 주었다.

저녁에 가서 본 새들러즈의 프로세니움 근처는 톰의 수사인 “빈벽”이 일종의 장벽인 것을 잘 보여 주었다. 새들러즈에서 라트라비아타를 보면서 극장형식의 결정적 중요성 하나가 객석 구성인 것을 실감하기도 하였으나 우리와 같은 하드웨어를 만드는 사람보다 실은 더 극장을 한 실상의 사건으로 만드는 것은 무대위의 사람들인 것을 절감한다. 지성적으로 생긴 비올렛나 성깔 있게 보이는 아르몽은 우리를 좌절케 한다. 역시 오페라는 최고인 것을 요구한다. 삶의 어떤 엑스타시가 필요하다. 공연예술의 실상은 마스터베이션이 아닌 육감적 참여를 요구한다. 톰에게서는 이년 가까이 자꾸 배울 것이 많아진다. 기술공간 시방서에 대한 그의 지적은 직업적 욕심과 자기방어적 과신에 바쁜 존 워컴의 커멘트에 비해 정곡을 말하고 있다.

아침에 워컴과 같이 본 올드 빅은 공학적 진상보다 극적 효과에 치우쳐 오히려 극적 사실을 잃은 것이 많아 보인다. 빅토리안 스타일의 객석 형식은 많은 점에서 진실에 접근해 있으나 반 민중적이다. 모든 객석의 자유스러운 무대와의 접근보다 전체로서의 사

실접근에 몰두해 있다. 우리가 추구해온 민주주의는 모두의 사실을 기본적인 출발로 하고 있다. 객석에 있어서 이런 관념적 괴리가 어느면에서는 반 예술적일 수도 있으나 올드 빅이나 새들러즈에서 느끼는 민중적 객석구성 개념확인에 많은 당혹을 느낀다. 우리가 매일 민주를 말하지만 인간의 본성이나 이런 복잡사건들에서 그말은 무엇을 말하는지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민주주의가 인간적 진실의 궁극을 말하기는 하나 인간이라는 상대집합의 입상에서는 아직 정의되지 않은 많은 부분을 갖고 있는 듯하다. 무대의 구성에서는 잘 알면 할 수 있으나 객석의 경우는 생각해야 할 많은 시각이 있는 듯하다. 피곤하고 지쳤지만 조금씩 사실의 근처로 접근한 기쁨이 편한 잠을 자게 한다. 팜에서 여덟잔 술을 마셔서 나른하다. 깊은 잠을 자고 싶다.

## 블랙크널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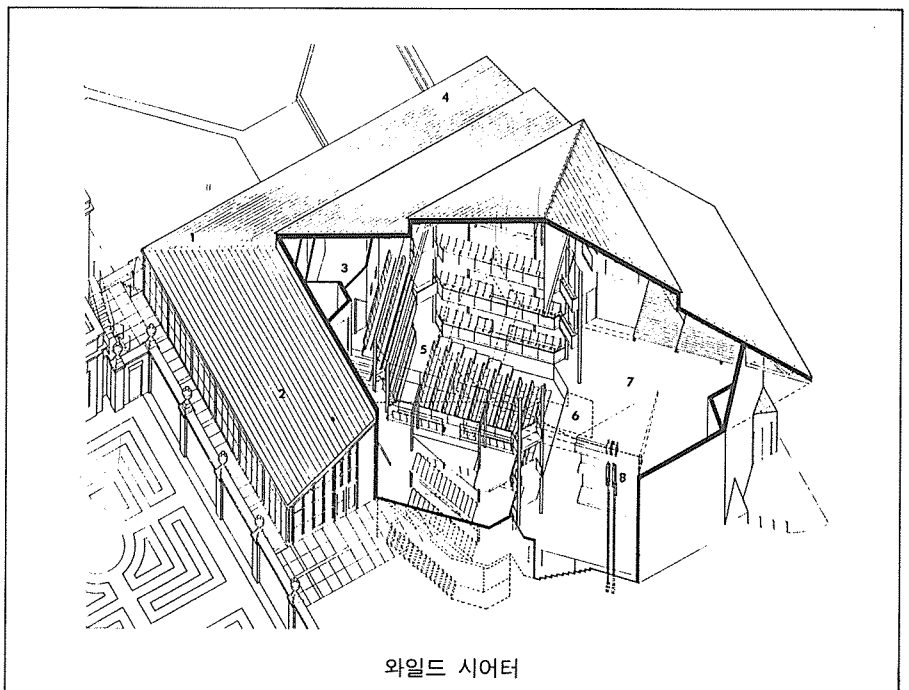
85. 11. 9

토요일이면 여기는 공휴일인데 7시에 일어나야 했다. 공휴일 9시면 새벽보다 차라

리 지난날 한밤인데 런던 교외에 열시에 만나기로 했으니 10분만 더 5분만더 하다가 할 수 없이 일어나 세수를 하는 등 마는 등 워털루역으로 달려간다. 워털루역에서 한시간 가량가는 곳이다. 소극장, 소극장 말만 피차 많이 해왔지 제대로 된 소극장을 본적이 없어 최근에 지어진 소극장으로 코테슬루 이후 가장 성공적이라는 와일드시어터를 보러 블랙크널로 가는 것이다.

공휴일 아침 일곱시 반인 워털루역은 역시 한가롭다. 주철제 역사건물은 산업혁명의 시대를 상기케 한다. 역 구내의 간이식당에서 달걀하나 우유하나 과일 하나로 아침을 때운다. 낡고 오래된 주철제 기차를 탄다. 케스트 아이언에서는 석탄냄새가 난다. 새마을호 보다 한참 덜거덕거리는 기차를 타고 런던의 위성도시쯤 되는 블랙크널로 간다.

워낙은 개인의 저택이었던 것을 누가 사서 아파트로 빌려주다가 이 마을이 커지면서 커뮤니티의 문화적 중심시설로 꾸미면서 이름을 사우스 힐 아트센터라고 한 모양이다. 항상 그렇듯이 이름을 그렇게 하다보니 차츰 관객을 갖추게 되고 더하고 덧하면서 그런대로 한 아트센터가 된 것이다. 60명 수



와일드 시어터

지겨운 사설을 들으면서 드롤리 레인으로 간다. 많은 사람들이 이 극장을 좋다고 한 이유를 가보니 알것 같다. 여러 공간형식이 단계적으로 이어가게 한 로비 부분의 분계가 적절하고 오디토리움은 2,270의 객석에 비해 친밀감이 있고 객석이 무대로 향해 모여드는 무대와의 일체감이 있다.

용의 영사관이 있고 100명 들어갈 수 있는 리사이틀 홀이 있는가 하면 재즈악단이 연주할 장소인 지하빠가 있고 비디오 제작실과 도자기 작업장도 갖추고 작지만 천정이 높은 갤러리도 있다. 40명 들어가는 스튜디오 극장도 마련되어 있고 야외 모임의 장소도 준비되어 있다. 자연스러운 필요들과 선심의 공급이 어울리면서 본격적인 공연장을 짓고 싶어졌고 여러해 걸친 모금과 토론 끝에 삼사백명의 객석을 갖춘 본격적인 소극장을 짓게 된 것이고 그로해서 이런 새벽 여행이 시작된 것이다.

고정적 세 갤러리와 가변인 스톨로 이루어진 객석과 프로세니엄을 분계로 객석의 세번째 갤러리가 작업 갤러린 무대가 만들어졌다. 객석의 스톨은 의자가 치워지면 전부 무대로 쓰일 수 있게 되어있기도 하지만 축제의 날들인 객석과 무대가 하나인 날에는 객석-무대가 한 이벤트의 공간이 되도록 되었다.

경량철골로 만들어진 단순하면서 세련된 공간이다. 복스오피스, 티서비스 카운터 및 대기홀인 입구 로비와 별도로 쓰일수 있는 퍼블릭 스페이스인 빠로 이루어진 하우스 부분과 객석 그리고 모든 것이 수동인 무대로 아담하게 만들어진 극장이다. 우리가 소극장에서 시도하고자 했던 세 무대형식을 그런대로 다수용 하면서도 가장 자주 쓰일 프로세니움 스테이지를 주 플로트로 해서 만들어진 극장이다.

우리가 가변 가변하지만 실은 주용도가 암시 되기는 해야하고 기계화 부분도 전체적인 질서 형식이 중요한데 지나치게 정통형식과 미래형식 양단을 방황한 듯한 느낌이 있다. 이런 평범하기 조차한 결구속에 우리가 상상하던 것을 대부분은 수용할 수 있는 것이다. 객석의 움직임이 수동형식 일변도인 것은 오히려 비경제적으로 보이거나 뒷무대 시설인 분장실, 대기실, 기계실들의 성실한 구성은 배워야 할 점이다. 층고도 2미터 5백이어서 우리와 같은데 더 다양하다. 작은데서 큰것을 이루지 못한다면 큰데서는 허황하게 될 뿐이다. 소극장에 좀더 정성을 가지고 몰두해야 할 것 같다.

런던으로 오는 길에 버지니아 워터라는 마을에서 한국 여자와 사는 영국 사나이 집도 방문하였다. 연립주택인데 앞측으로 개천이 흐르고 별관이 열려있다. 연립주택 문인데도 각 마당이 멀리 열려있어 별관에 혼자 나 앉은 느낌이 있다. 실은 사람들이 이렇듯 자신의 소유주를 외롭게 가지는 것인데 우리는 너무 엉켜있는 듯하다. 영국 신랑 어머니도 마침 와 계셨는데 케임브릿지 출신 할머니 답게 고양스러웠으나 늙은 시어머니의 정서적 갈등과 외로움은 매일 보는 우리를 어머니와 다른 것이 너무없다. 마을 중심이기도한 테임즈강 지류인 강가에 자리잡은 에인절스 터번이라는 퍼브에 가서 스벅이었지만 즐거운 점심을 들었다. 이렇게 외국에 와서 외국인과 사는 한국 여자를 보는 기묘하게 착잡한 느낌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 드롤리 레인에서

85. 11. 11

워침이 아홉시에 왔다. 한때는 가장 크고 훌륭했던 왕립극장인 드롤리 레인으로 간다. 이 사람은 영국 사람인 자기주위 사람들만이 무엇을 할 수 있다고 믿는 좀 모자라지만 그래서 오히려 흔한 인간형인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놀랄만큼 우리 주위에 많다. 나쁜 사람은 전혀 아니고 그저 약간 머리가 나쁜 그러면서도 자의식이 강하고 욕심이 많고 성취욕이 강하다. 대개 성공형인 사람이다.

지겨운 사설을 들으면서 드롤리 레인으로 간다. 많은 사람들이 이 극장을 좋다고 한 이유를 가보니 알것 같다. 여러 공간형식이 단계적으로 이어가게 한 로비 부분의 분계가 적절하고 오디토리움은 2,270의 객석에 비해 친밀감이 있고 객석이 무대로 향해 모여드는 무대와의 일체감이 있다. 일층 뒤객석의 대부분 시각도 훌륭하다. 양측 셋씩인 박스도 전체적인 현장감의 결정적 역할을 해주고 있고 가운데 박스는 이계층인 로열 박스다. 관중을 향한 자세가 미소롭다. 무대에서 바라본 객석의 전개가 무대를 향하

여 모여드는 듯한 현장감이 뛰어나다. 프로세니엄을 경계로한 객석-오케스트라펫-무대로의 공간전환이 양측 복스로 해서 자연스럽다. 라스칼라 같은 약간 더 적극적인 장치가 있었으면 프로세니엄아치의 약간 처진 공간감을 키울 수 있었을 것이다. 무대는 오래된 무대라 별 것은 없다.

이 극장은 장기공연 위주므로 덧 무대에 레일을 두어 장치전환을 하고 있다. 뒷 무대는 예상보다 크기가 좋다. 페인트 솜도 길이가 21미터 높이가 9미터로 외부의 주문을 받는다. 페인팅 리프트가 셋씩이나 있다. 재미있는 것은 아래층이 크기 그대로 목공실인데 양측 리프트는 가려졌지만 층간리프트는 두 기동열 사이를 오르내리게 되어 위험스러워 보이지만 일하는 재미가 있어도 보인다. 목공실은 셋이서 일하고 있었는데 독일의 경우에 비해 역시 지저분하다. 페인트 솜에서 아티스트와 말해 보았는데 리프트를 쓰는 편이 그리기가 쉽고 최근 개발된 투명 웨브릭에의 칠은 리프트에서만 가능하나, 바닥에 깔고 그리는 것도 접하면 좋다는 얘기다. 그저께 울드 빅의 처녀 아티스트는 신이라는 것은 무대 조명속에 보일 것이므로 자연채광은 좋지 않다 하였으나 이 양반 말은 그림은 자연 채광속에서 그려야 제대로 색깔이 만들어지며 무대조명은 일반 조명과 전혀 다르므로 자연채광이 이상적이라고 말한다.

이렇게 말을 들으면 다 제각기다. 독창적 종합력이 없이 여기저기 많이 듣고 배우기만 해온 우리 주위의 준 전문가들의 정처없음이 이런데서 연유하기도 할 것이다. 정보들이 많을수록 더 본격적인 것을 만들수 있는 사람은 오히려 회귀할 것이다. 판단능력 없는 사람에게의 과다한 정보가 어떤 결과를 주는지는 우리가 주위에서 흔히 보는 일이다. 우리 주위만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도 이일을 하면서 다섯번 이런 여행중에 매번 도사가 되어 돌아왔지만 귀국해서 다시 그리고 발전시키다 보면 다 무엇이 무엇인지가 흐려지고 서로 상치되는 정보가 겹쳐 우왕좌왕한 것이 한두번도 아니었던 것이다.

(2월호에 계속)